

<번역 논문>

우리의 번역문은 설득력이 있는가?¹⁾

로스 막케라스*

어느 한 언어와 문화권에서 설득력 있고 우아하고 논리적인 것도 또 다른 하나의 언어와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자가 음(音)의 일치, 상투적으로 서열 매기기, 자기 문화권에서 독특하게 의미가 통하는 개념들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 짓기를 할 때에 특히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 정도 문자적으로 번역하여 독자에게 젖은 폭죽을 떠맡겨 놓는 것만으로 충분하겠는가? 여기서 내가 목표하는 바는 그 전술을 폭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번역문이 그 본래의 정황에서 원문처럼 설득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바로 그 물음은 토론거리이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몇몇 본보기와 제안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어느 한 언어에서 허용된 화법이 종종 다른 한 언어에서는 비논리적으로 또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로마서 13:11은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깝다.”라고 말한다. 독자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 얼마나 요령부득한 말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종종 명백한 것을 진술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언어 관례의 일부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3:11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그것을 다음과 같이 좀 더 관례적인 영어 화법으로 단순히 옮김으로써 요령부득이라든가 논리의 결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이 늘 더 가까워지고 있다.”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 역시 명백한 것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에서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비논리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점이 중요하다.

우리의 번역 언어는 원문 언어와 상이한 순서로 사물을 목록에 기입하기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고려해야 한다. 종종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는 수량이 내림 순서로 기입된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8에 다음과 같이

* 필자는 SIL(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번역자이며, 바누아투(Vanuatu, 피지에서 800km 서쪽,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800km 동쪽에 있음) 공화국의 번역 고문이다.

1) Ross McKerras, “Are Our Translations Convincing?”, *The Bible Translator* 61:2 (April, 2010), 93-97을 번역하여 수록함.

표현되어 있다: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거기서 열매를 맺었는데, 심은 것의 100배, 60배 또는 30배가 되었다.”(NIV; 마 25:15; 눅 7:41을 참조하라.) 그렇지만 마태복음 13:8과 병행절인 마가복음 4:8은 오름 순서를 사용한다. 오름 순서는 영어에서 전형적인 양식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점강법(漸降法)처럼 들릴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요한계시록 9:15에 기입된 순서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 즉 원문에 “바로 이 시각과 이 날과 이 달과 이 해를 위하여 예비된 네 천사가 풀려났다”라고 표현된 것을 영어로는 “바로 이 해와 이 달과 이 날과 이 시각을 위하여 예비된 네 천사가 풀려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 영어의 문체는 초점을 시간의 최소 단위로 좁힘으로써 정점을 형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마가복음 7:21-22의 죄의 목록은 현대인의 귀에는 약간 생소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목들을 명백히 어떤 식으로나 분류하거나 정돈하지 않은 채로 마구 건너 뛰기 때문이다. 우리들에게 중대한 죄로 보이는 것이 명백히 사소한 죄와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15의 죄의 목록은 “살인자”로 시작하여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끝난다. 이 목록에 열거된 순서가 언급된 죄의 상대적 중대성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뒤엎으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에 사용되는 우리의 보통의 문형은 가장 중대한 것을 끝에 놓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하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들릴 위험이 있다. 최근에 내가 본 한 협잡 첩보 영화에서 그 악당들의 범죄의 목록이 “살인, 폭행, 공갈, 총 250달러의 주차 위반 벌금, 그리고 반납 기한을 넘긴 세 권의 도서관 장서”라고 제시되었다. 우리가 성서에 번역해 놓은 목록 표가 독자들에게 때때로 이것처럼 들리지 않을지 나는 궁금하다. 종종 그 목록표들은 그저 난잡한 나무토막 더미와 방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스어 신약성서에 나오는 목록의 순서는 음과 운율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한 더 깊이 탐구할 흥미가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 이유로 종종 유발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번역에 사용하는 언어의 규범에 의거하여 우리가 우리의 목록들을 좀 더 논리적인 것이 되도록 만드는 몇몇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하며 또한 종종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마가복음 9:47-45는 언제나, 여러 가지 말씀을 전적으로 마구 뒤범벅 해놓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소절이다:

“47 그리고 네 눈이 너를 걸려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네가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다. 48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9 모든 사람이 불로써 소금절임을 당할 것이다. 50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너는 어떻게 그것을 맛나게 하겠느냐? 너희들 안에 소금을 간직하여라. 그리하여 서로 화목하여라.”(NRSV)

그러나 연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문장들은 하나하나의 표어—그것 자체로 또는 그것이 연결하는 문장들로 주의를 끄는 반복되는 한 낱말로 연결되어 있다. 즉 그 표어는 ‘불/불로써 소금절임하다/소금/소금’이다. 데이비스(Davies)와 앨리슨(Allison)은 이것을 지적하여 언급하기를 마태는 마가와 달리 언제나 자기의 자료를 주제적으로 배열한다 (1888, 87)고 했다. 이러한 종류의 연결은 서구적인 사고방식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문의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마이클 그랜트(Michael Grant)가 언급하기를, 합리적인 연관성보다는 이와 같이 연상시키는 연관성이 고대 역사가들의 전형적인 문체인데, 이는 그들의 작품이 암송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1970, 29).

동일한 종류의 연결법이 번역어 공동체에 잘 작동할지도 모른다. 특히 그 공동체들이 문자적이기보다는 더 구술적인 편이라면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어에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

신약성서에서 표어(알터[Alter]는 이것을 열쇠말 또는 이끔말이라 부른다 [1981, 92])가 확장된 소절에 사용되고 있는 몇 개의 흥미 있는 본보기가 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너희 형제들을 심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한다. 그 소절에서 그가 여러 번 사용하는 핵심 낱말은 ‘심판하다’(*krinō*)이다. 이 낱말은 ‘비판적’(critic)이라는 낱말과 관련이 있다. 이 열쇠말의 상이한 의미들을 끌어들이므로써 그리고 이 낱말의 복합어의 몇 개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바울은 23개 절을 연결짓는 한 가닥의 실을 자아낸다. 그 결과는 전체 소절에 응집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응집력은 우리들의 번역본들에서는 결여되어 있다. 아래에서 나는 그 낱말 또는 그 낱말의 복합어의 하나가 발견되는 구절의 번호와 CEV가 그것을 번역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1절 비판하다(criticize); 3절 비판하다(criticize); 4절 비판하다(criticize); 5절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모든 날은 똑 같다고) 생각하다(think); 10절 비판하다(criticize); 13절 심판하다(judge); 13절 작정하다(make up one's mind); 22절 의심을 품다(have doubts); 23절 의심을 품다; 23절 (그것은) 나쁘다(is wrong).

정확하게 그리스어의 ‘*krinō*’(심판하다)처럼 행동하는 하나의 낱말을 영어에서 (또는 다른 어느 번역 언어에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CEV가 그 낱말을 번역하기 위하여 몇 개의 다른 낱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목하라. 그러니까 원문에 사용된 그 표제어 방법은 어떻게 우리들에게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번역자는 번역어가 그 동일한 효과를 성취하는 특별한 방법들을 탐색해내는 자유를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번역자가 직면하는 영구적인 문제는 그가 문자적인 번역에서 떠나자마자 비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이다!

표어의 확장된 사용의 둘째 본보기는 고린도후서 8장에 사용된 *charis* (보통으로 ‘은혜’로 번역됨)라는 낱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낱말이 발견되는 구절의 번호를 여기에 제시하는데 그것은 NIV 번역에 의거한 것이다. 1절 은혜(*grace*); 4절 특권(*privilege*); 6절 은혜의 행위(*act of grace*), 베푸는 은혜(*grace of giving*); 9절 은혜(*grace*); 16절 감사하다(*thank*); 19절 헌금(*offering*).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특색이 있다. 그것은 유사하게 발음되는 *chara* (기쁨)라는 낱말이 2절에서 연쇄의 한 연결 고리로서 또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이(*transductio*) 또는 수식(*exornation*)으로 알려진 고전적 웅변술의 한 기법이었다. 즉 한 낱말이 그것의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교적으로 반복된다. 우리의 번역문이 그러한 매력적인 광택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졸렬한 문체로써 독자들을 내쫓는가?

낱말 선택은 매우 자주 소리의 대응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1:28에서 왜 바울이 “나의 나날의 근심”(my daily concern)이라고 말했는가? 왜냐하면 ‘나날의’(*hermenan*)라는 낱말이 ‘근심’(*merimna*)이라는 낱말과 병행적이며 그 소리의 대응이 그의 요점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하나의 유쾌한 문체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확실히 번역자는, 적어도, 번역 언어에서 이 두 가지 일 중의 어느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낱말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다른 종류의 문학적 장치는 베드로후서 3: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NIV, NJB). 여기에는 교차대구적 구조로 된 병행대구가 있다. 그래서 둘째 부분에 있는 요소들의 순서는 첫째 부분에 있는 순서의 역(逆)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학적 장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논리를 보기 어렵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렇다.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시간을 우리가 보는 방법과 달리 보신다. 우리가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바는 주님께는 긴 것이 아니다.”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진술의 끝마무리는 둘째 부

분이다. 즉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러나 교차대구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첫째 부분, 즉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혼란을 일으킨다. 그것은 베드로의 요점에 반대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형식적 번역문조차도 때로는 교차 대구에 제시된 순서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이 여기서처럼 수정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번역과 마주칠 때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GNB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차대구를 단순히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님이 보시기에 하루와 천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주님께는 그들은 똑 같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첫째 부분을 단순히 생략해 버림으로써 의심할 여지없이 어떤 것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시가의 번역을 검토해 보면, 음과 운율의 패턴이 일으키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한 연(聯)을 고려해 보라.

Eternal life hath He
Implanted in the soul
His love shall be our strength and stay
While ages roll.
영생을 그분은
영혼에 심었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힘이 되어 남아 있으리.
세월이 흘러가도.

이 옛 찬송은 음(이 경우에 운율[rhyme]과 박자[metre])에 대한 고려가 다루어지는 주제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 준다. 첫 두 행(行)의 주제는 영생이다. 다음에 ‘사랑’을 언급하려는 결정은 하나의 운(韻)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시인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 “영혼에 심었다”라는 행은 이러한 제한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것은 첫 행에 맞추어 여섯 박자(beats)를 가져야 하고 “세월이 흘러가더라도”라는 마지막 행과는 각운(脚韻)을 맞추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 자체에 있어서는 논리적 연결이 오히려 약한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것을 각운(rhyme)과 울격(metre)에 맞추어 읽으면, 그 흐름은 매끄럽게

되어 독자는 논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각운과 울격이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몇몇 번역 이론가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할 것이다: “그렇다. 이 경우에 당신은 (원문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서보다는 시가를 다루는 데 더 많은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찬송의 시적 특질을 고려하여 그것을 확실하게 잘 번역한다면, 우리는 성서가 잘 번역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적어도 (시가 번역에 주의 기울이는) 그만큼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어 너머 문화적 쟁점에 다다른 두 개의 사례를 들으로써 결론을 맺을까 한다.

중풍 병자에게 “네 죄가 사하여졌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서서 네 자리를 들어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나?(막 2:9)

현대 서구인들에게 이 구절의 논리가 아무리 불명확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전통적 문화권에 속한 번역 청중들을 위해서 아무런 변경이나 해설이 필요 없다. 그들은 죄와 고난 사이에 하나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본다. 그래서 예수가 의도하신 논리가 그들에게는 명백하다. 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표시가 될 것이다; 남은 일은 치유의 사실이 각 사람의 눈의 검증에 공개되는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범하는 모든 다른 죄는 그의 몸 밖에(outside his body) 있다. 그러나 성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에 거슬러(against his own body) 죄를 짓는다.(고전 6:18 NIV)

여기서 ‘...에 거슬러’(against)라는 낱말은 그리스어 전치사 *eis*를 나타낸다. 이 그리스어 전치사는 또한 ‘... 안에’(in)를 뜻하며 ‘... 밖에’(그리스어 *ektos* = 영어 *outside*)와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낱말 놀이가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모든 다른 죄는 ... 몸 밖에 있다”: 이 논리는 따라가기 약간 어렵다. 그러나 명백히 그것은 도둑질과 살인 같은 것들을 사람의 팔 끝에서, 즉 몸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간음은 몸/자아의 바로 중심부에서 범해진다. 약간의 정신적 노력만 기울이면 우리는 바울의 논증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청중들에게 명백히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만큼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바울은 그의 논증을 그들

의 문화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상투적인, 수용된 지혜에 결부시킨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의 논증을 그가 하듯이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구 문화에서 일반 통념은 다음과 같다: “노새는 완고하다; 장모는 참견쟁이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 서구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새나 장모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말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화에서는 그 생각은 아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바울의 논법에 약간 당황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러한 감상(感傷)에 당황할 것이다.²⁾

내가 제시한 모든 본보기에서 정말 그렇듯이, 이 마지막 본보기에서 번역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토론거리로 열려 있으며 그것은 거의 확실히 번역 언어와 문화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정확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더 문자적인 번역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는 시기에 나는 정확성이라는 명분으로 번역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도록 간청하고 싶다. 내가 나의 문화와 언어의 규칙에 의거하여 잘 논증된 글을 썼는데 내 글의 번역자가 문자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전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번역문을 생산해 놓았다고 하면, 나는 그를 해고할 것이다.

(김창락 번역)

2) 이 소절을 달리 취급한 것을 보려면 Powers(2009)의 글을 참조하라. B. Ward Powers, “Body and Flesh implications in Paul’s Corinthian Dialogue”, *The Bible Translator* 60:4 (2009), 224-233.

<참고문헌>(References)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Davies, W. D., and Dale C. Allison, J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3 vols., Edinburgh: T & T Clark, 1988.

Grant, Michael, *The Ancient Historians*,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870.

Powers, B. Ward, “Body and Flesh implications in Paul’s Corinthian Dialogue”, *The Bible Translator* 60:4 (2009), 224-233.